

세월호 피해자·국민 '슬픔 보듬기' 준비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매 주말마다 추모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며, 불교계도 잇달아 추모 행사를 개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조계종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유가족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해 서로를 위로했다.

24일에는 안산시사암연합회(회장 승현)가 1달 동안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한 '참회·추모·회합'의 1만배 회향 법회가 열렸다. 안산시 사암련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올리는 형식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대의 공명을 참회했다.

종단 차원의 49재도 준비 중이다. 천태종은 6월 1일 서울 서초동 관문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49재 및 참회 법회를 봉행하며, 각 종단들도 49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범종단적인 49재와 추모 위령재를 6월 중순 경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들도 전국 사찰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계가 열거나 추진 중인 추모행사와 49재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워낙 대형 참사이고 아직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수 없었다. 이 같

이 '울어줄 공간'을 마련하는 불교계의 추모 행사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사고 직후 진도 팽목항에 긴급재난구조봉사단을 파견해 현장 봉사를 하고 법당을 설치해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것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여실히 수행한 것이었다.

불교계 추모행사 잇달아 개최

종단협 6월 중순 합동 49재도

성금도 잇달아 담지 '자비행'

개신교 2년동안 돌봄 캠페인

현장 중심 지속 지원 준비돼야

자승 스님 "치유 프로그램 준비"

거점 템플스테이 설치 등 필요

문제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이후이다. 49재 등 추모행사를 마친 이후 사업 방안 등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1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겨진 슬픔'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들이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 간 돌봄과 위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총무기관 스님들은 5월 22일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추모 이후 남겨진 슬픔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회(위원장 김삼환)가 중심이 돼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등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가정에 파견하고, 상담치료와 함께 재정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지원 돌보미 인력 양성과 안산지역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불교계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만큼 희생자·실종자 유가족과 생존자, 나아가 국민들을 치유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교계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실제 조계종은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의장단의 성금 전달 자리에서 "종단 차원에서 세월호 희생자 49재와 치유프로그램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가

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가장 먼저 불교계에서 계획 중인 49재를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국민적 행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후 유가족과 국민들이 불교의 문화와 신행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템플스테이 사찰을 중심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거점 사찰을 지정해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스님과 재가자로 구성된 치유 상담 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상담·케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i.com

민족대표 용성 스님, 잊지 않겠습니다

탄신 150주년 선양사업 잇달아...5월 29일 심포지엄·6월 5일 법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 한명이었던 용성 스님의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된다.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법륜)는 오는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탄생 기념 심포지엄을, 6월 5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기념 법회를 각각 개최한다.

6월 5일 열리는 기념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법륜 스님과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원 스님, 前 포교원장 혜종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장재영 장수군수 등과 일반 시민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에서는 '나 용성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다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주제의 기념 퍼포먼스가 선보여지며, 법회 후에는 기념 음악회도 열린다.

'부처님 정법의 계승과 전파'와 '시대의 과제, 독립운동'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탄생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용성 스님의 불교 안팎의 행적을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이뤄진다. 발제자로는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 김순석 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하며,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집 진각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이



민족대표 33명 중 한명인 백용성 스님의 진영

토론자로 나선다.

(사)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성장이 백용성 조사를 비롯한 선조들의 인연공덕임을 생각한다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에 맞게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면서 "내적으로는 부처님 바른 법을 따라 수행정진하여 나와 이웃의 행복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 과거 백년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백년의 희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공공연구 분야 '종교편향' 논란 해결점

불교학계 반발에 한국연구재단 '불교학 전문위원' 선출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전문위원 선임에서 종교분야 중 불교를 배제 시켰던 한국연구재단이 불교학계의 반발에 불교학 전문위원을 선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불교학계와 간담회를 열고 학술연구분야분류표를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5월 20일 '(사)한국불교학회 공문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을 통해 "종교분야 책임전문위원(CRB) 선임에 학문적 전문성, 형평성 및 공정성을 지닌 학자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학술연구분야분류표 상에 있는 종교분야 불교학의 전문위원(RB)을 선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어 "학술연구분야분류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책연구과제 '융합시대 인문학 연구분야분류표 재설계를 통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종교학회에 기독교 10명, 가톨릭 10명, 한국종교 10

명의 후보로 구성된 인문학 분야 책임전문위원(CRB) 및 전문위원(RB)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는 가톨릭과 기독교는 종교분야와 철학분야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불교는 철학 분야만 인정받은 것으로 종교편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불교학회를 비롯한 11개 불교계 학술단체들은 이에 성명을 통해 △종교편향에 대한 연구재단의 사과 △학문분류표 개정 특위 구성 △전문위원 추천 요청 학회 선정기준 공개 등을 촉구하고 해명 없으면 시 공직자 종교차별행위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에 대해 불교학계는 간담회 개최 및 불교학 전문위원 선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공식 해명과 사과가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장은 "불교계 학회들에서 수용의 입장이 많았다"며 "한국연구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전문 인력 양성할 '능인대학원대학교' 문 연다

지광 스님 10년 원력 봉사 '완성' 경기 화성 위치... 3천평 규모 불교학·상담치료 등 석·박사 과정 6월부터 학생 모집... 9월 개강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이 운영하는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가 9월 1일 개강한다. 사진은 학교 전경.

불교학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대학교가 경기도 화성시에 개교한다.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은 5월 21일 "불교학을 비롯한 응용불교학 연구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의 요람인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고 9월 1일 개강한다"고 밝혔다.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 지광, 이하 능인대학원대학)는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의 인재육성 원력의 집결체이다. 2004년 한국불교학원 설립허가를 받고 2005년 11월 대학건물 기공식을 가진 후 10년 학교 건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간 투입된 자금만

120억 원이다.

많은 정재가 투자된 만큼 교육기반시설이 매우 탄탄하다. 학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9,917㎡(3000여평)에 이르며 스포츠센터부터 도서관, 강의실, 학보사, 세미나실, 방송국, 강당, 교수 연구실 등 다양한 학내 시설들이 들어섰다.

내년엔 300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도 지어진다.

올해 1월 교육부로 정식 인가를 받은 능인대학원대학은 석사학위 과정부터 시작하며, 2년 뒤에는 박사과정도 개설한다. 현재는 불교학과(불교학, 전법학)와 응용불교학(명상학, 융합상담심리학, 융합심리지


료학) 등 2개 과가 우선 운영된다.

능인대학원대학 총장 지광 스님은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이 강남 포교 산실 능인선원을 이끌어낸 노하우를 전부 전수할 계획이다.

지광 스님은 "불교는 현대화 되고 새로워져야 하지만 한국불교는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능인대학원대학은 부처님의 이상을 현대에 맞게 새로운 각도로 조명해 불교 과학화와 현대화의 첨병들을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능인대학원대학은 9월 개강을 맞아 첫 신입생들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 각각 50명이다.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2014년 8월 취득예정자, 법령상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누구나 입학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5월 26일~6월 7일까지다.

문의 www.niu.ac.kr, 02)578-1880, 031)8046-9700 신성민 기자



관세음보살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대자대비의 그늘을 드리우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주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을 이루는 영험한 기도도량 - 현지사 서울분원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6월 정기법회 : 6월 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길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8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법(邪法)의 여섯 가지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관세음보살님 기도 및 공부법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3,5,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서울분원 관음재일 안내 : 매일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안내 : 음력 1일, 15일, 23일,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혜민병원 뒤) 02-453-5953

정법교단은 ①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에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